

3. 순천청년동맹의 결성과 활동(1927~1931)

1) 청년운동의 방향전환

1926년 봄 이래 비합법영역에서 통일운동이 추진된 결과 8월경 이른바 합청이 성사되어 청년운동의 통일적 지도부로서 고려공청 중앙이 건설되었다. 공청 중앙은 당면사업의 하나로써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을 계급적으로부터 민족적으로 개정할 것”을 결정하고 종교계 청년, 부르주아계급 청년까지 조직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926년 말에는 합법영역에서도 전 민족적 청년운동으로 방향전환론이 고창되기 시작하였다.¹⁾ 그 골자는 전 민족적 청년대중에게 청춘의 문호를 개방하며, 군·부단위로 모든 청년단체를 해체한 위에서 단일한 청년동맹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군·부 단일청년동맹의 결성과정은 분과투쟁을 지방 차원에서 극복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종교적 청년단체의 회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민족적·대중적 청년운동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기도 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을 이끌어간 것은 비합법영역의 당·공청 전남도기관과 공개 영역의 전남청년연맹(이하 전청련으로 약칭)이었다. 당과 공청의 전남도기관은 1927년 2~3월경 재조직되었다.²⁾ 당·공청 전남도기관은 주변 활동가들을 당과 공청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전청련의 틀을 이용하여 급속하게 청년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들은 1927년 4월 전청련 진용을 새로 정비하고 전청련 집행위원회의 입장부터 통일시켜 나갔다. 6월에 개최된 전청련 집행위원회는 청년운동의 방향전환, 정치투쟁문제, 민족적 유일당 결성문제, 사상단체 해체문제, 파쟁의 청산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7~8월에는 전청련 주최로 광주에서 하기대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는 당·공청 전남도기관에서 전청련의 틀을 빌어 전남 청년운동의 이론을 통일하고자 마련한 것이었다. 각 군의 청년활동가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동안 계속된 하기대강좌는 표면적으로 철학, 경제학 등을 강의하는 한편 비밀 혹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년운동의 방향, 신간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나갔다.³⁾

이무렵 청춘 중앙집행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다. 청춘 신지도부에는 당·공청의 전남지역 책임자인 강석봉, 김재명이 포함되었다. 청춘 중앙집행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회합을 갖고 신강령과 신조직방침, 20개 조의 정책을 통과시킴으로써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을 공식 선언하였다.

신강령은 첫째 전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둘째 전 조선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셋째 전 조선 청년대중조직의 공고한 완성을 기함의 3개 항으로서 이전의 강령과 비교해볼 때 계급적 색채를 탈각한 것이었다. 당면 정책은 조선민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 민족적 단일협동전선 결성의 촉진, 청년

1) 1926년 12월 경성청년연합회 집행위원회, 한양청년연맹 세포단체 연합간담회, 경성 부근 청년단체 연합간담회에서는 연이어 청년운동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2) 신주백, 앞의 논문, 142~144쪽. 1927년 2월 초 무렵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姜錫奉, 柳赫, 金在明은 조공 전라남도 위원회(전남도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전남도당 책임비서는 강석봉이었고, 김재명은 공청 책임비서 겸 도당 선전담당으로 선정되었다.

3) 신주백, 위의 논문, 162~163쪽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261~262쪽.

남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획득, 남녀 아동의 의무교육제도 확립, 청년 남녀의 인신매매의 사실상의 폐지, 청소년·여성·백정·노역군에 대한 차별대우의 사실상 폐지, 14세 미만 유년노동의 금지와 18세 이하 청년 남녀의 6시간 노동제 실시, 20세 미만 남녀 노동자의 야업·잔업·유해·위험작업의 금지 등이었다.⁴⁾

청총의 신운동방침은 민족적 단일협동전선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주의 청년단체, 기타 청년단체를 불문하고 지역적 단일청년동맹으로 묶어 세우고 그 위에서 전국적인 단일중앙집권적 조직을 완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종교·형평·여자·학생·민족부르주아 청년단체를 포괄하여 청총~도연맹~군·부동맹~동맹지부~반으로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동·리를 단위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장·회사·광산·선박 등 생산현장을 단위로 삼아 동맹원 5명 이상인 곳에 반을 설치하고 동일 지역에 2개 이상의 반이 성립하면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방침은 종래의 '무산계급적' 청년운동에서 '전 민족적' 청년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국적 청년단체를 완전한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체로 완성하려는 전망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후 전남 각지에서는 군 단일청년동맹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4) 李江, 「朝鮮青年運動의 史的考察」下, 『現代評論』 2-1, 1928.1, 20쪽.